

도로 개설 조건 '땅 기부'...공익일까? 사익일까?

구례읍 중앙로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특혜 시비에 공사 중단 군, 도로 개설 거부에 기부 당사자 군의회 의장 행정심판 청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구례 중앙로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중단됐다. 구례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구례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구례읍 봉동리 393의

6번지 일원의 1815㎡ 부지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차량 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중앙로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김승식 구례군의회 의장의 행정심판 청구로 일시 중지된 상태다. 구례군은 당초 57만 규모의 주차장만 건설한 계획이었으나, 인근 일

부 주민들이 차량 진입도로가 없어 불편하다며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김 의장이 주차장 조성 부지 인근의 자신의 소유 땅 410㎡(1억2000만원 상당)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례군 경제발전위원회는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 주차장 경계의 김 의장 소유 땅값도 오르게 돼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며 김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당초 구례군의 계획보다 주차장 규모가 8만 늘어나 총 65대를 주차할 수 있고 공사

비도 2억4000만원 절감되는데 어떻게 특혜가 되느냐"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 경제발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닥치지도 않은 감사 등을 의식한 소심행정의 표본"이라며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28억원 투입...2024년 완공 성황교차로~대근교차로 2.3km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를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양항 주변 각종 개발사업 준공과 국도 2호선 개통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대형 트레일러 등 광양항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추진한다. 광양시는 수년 전부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건의, 지난해 10월 사업을 확정했다. 공사 구간은 국도 2호선 성황교차로-대근교차로까지 약 2.3km이며, 성황교차로-컨테이너부두교차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컨테이너부두교차로-대근교차로는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한다. 총사업비는 22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등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을 통과해 광양항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각종 안전시설물 보강과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예술의 섬' 고흥 연흥도 첨단 스마트 섬마을로 12억 들여 VR미술관 등 운영

'지붕 없는 미술관, 예술의 섬' 고흥 연흥도가 첨단 스마트 섬마을로 거듭난다. 고흥군은 연흥도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첨단 기술 활용형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고흥군은 국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예술의 섬' 연흥도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흥도 미술관을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가상 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또 미역과 김, 톳 등 지역 특산물을 로컬 푸드로 개발하기로 했다. 노약자를 위한 어르신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연흥도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섬마을로 변신한다. '소리부부'로 불리는 두 개의 거대한 소리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마을방송도 하게 된다. 연흥도는 섬 속에 미술관을 가진 국내 유일의 섬으로 면적 0.55km², 해안선 길이 4km, 60여 가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섬 전체가 다양한 미술품으로 꾸며져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 9일부터

여수해양경찰청은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8일까지 홍보·계도를 한 뒤 9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 실시한 음주운항 단속에는 모두 32건이 적발됐다. 어선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축사 불법매립 석탄재서 유해 중금속 검출

주변 수질검사 수은 등 기준 초과 군, 원상복구 명령...경찰 고발

고흥의 한 축사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재활용 폐기물(광주일보 4월28일 13면)에서 유해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슬래그 성토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한 고흥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유해물질 누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덕면 농경지 인근에 축사를 짓기 위해 성토한 재활용폐기물(슬래그)에서 침출수가 흘러 악취와 함께 수질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이 축사에 매립한 토양과 주변 농수로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과 하천수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총 4곳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료 중 3곳에서 수은(0.02mg/l)과 납(0.51mg/l), 비소(0.13mg/l), 구리(0.07mg/l) 등이 검출됐다. 일반 '가'지역인 도덕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납 0.5mg/l, 수은 0.005mg/l이기 때문에 수은은 허용치의 4배가 검출됐다. 4곳 중 1곳에서만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곳의 시료는 축사와 합류하기 이전의 농수로에서 채취한 시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천수의 중금속 검출이 축사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축사 내 토양에서도 납,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0.56mg/l), 구리(0.174mg/l)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수은은 0.0112mg/l가 검출돼 허용기준(0.005mg/l)을 2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고흥군은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채취해 다시 분석을 의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환경 보전법에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 오염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원인행위자를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토 작업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불법 매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의 한 축사 관계자가 불법 매립한 재활용폐기물(슬래그)을 걷어내고 있다. <고흥군 제공> 1), 구리(0.07mg/l) 등이 검출됐다. 일반 '가'지역인 도덕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납 0.5mg/l, 수은 0.005mg/l이기 때문에 수은은 허용치의 4배가 검출됐다. 4곳 중 1곳에서만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곳의 시료는 축사와 합류하기 이전의 농수로에서 채취한 시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천수의 중금속 검출이 축사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축사 내 토양에서도 납,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0.56mg/l), 구리(0.174mg/l)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수은은 0.0112mg/l가 검출돼 허용기준(0.005mg/l)을 2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고흥군은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채취해 다시 분석을 의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환경 보전법에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 오염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원인행위자를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토 작업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불법 매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